

“갈 곳 없는 외국인 보호”...이주민수호천사 911쉼터 개소

한국인 남편을 믿고 베트남에서 건너온 A(여·41)씨는 최근 머물 집이 없어 곤경에 빠졌다.

결혼 비자(F-6)를 받아 광주에 온 지 4년차인 A씨는 지난달 초 집 안 욕실에 남편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A씨와 두 딸들을 촬영하고 있던 사실을 발견하고 이혼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남편의 보복이 두려운 A씨는 두 딸과 함께 집을 나왔지만, 이국땅에서 당장 하룻밤 지낼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캄보디아 출신의 B(여·45)씨도 1년동안 일하던 화순군의 한 농장에서 쫓겨나 갈 곳을 잃었다.

B씨는 지난 18일 밤 10시에 돌연 농장주로부터 근무 시간을 잘 맞추지 못하고,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기숙사 외에 설만한 숙소도, 마땅히 돈도 없었던 B씨는 농장주에게 “하루만 더 재워달라”고 했으나 끝내 거절당했다.

아시아인권문화재단 광주시 광산구에...의·식·주거 공간 지원
벌써 10여명 입주 생활...가정상담·임금체불 등 해결 도움도

‘코리아 드림’을 안고 광주-전남을 찾아온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들 중 A·B씨와 같이 긴급한 사연으로 하룻밤을 지낼 주거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가정 불화, 임금체불, 폭력 등의 문제로 집이나 숙소에서 쫓겨나거나 돌아갈 수 없는 이들이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지역 민간단체에서 거쳐 없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보호 공간을 만드는 등 민간 차원의 대책이 속속 나오고 있다.

아시아인권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최근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에 ‘이주민수호천사 911쉼터’(쉼터)를 정식 개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곳은 단기간에 거처를 정하지 못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오갈 곳이 없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의·식·주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쉼터다.

남성과 여성 쉼터를 별도로 분리된 공간으로 마련했으며 최대 수용 인원은 남성 15명, 여성 10명이다.

쉼터에 입소한 이들은 저마다 어려운 사연을 안고 있다.

베트남 출신 C(25)씨는 수년간 제주도에서 일용직을 하며 생활하다가 수 차례 임금을 밀려다 공여지책으로 일거리를 찾아 광주로 왔다.

하지만 C씨는 광주에 온 첫 날부터 숙박할 곳을 찾지 못했다. 하루에 5-6만원씩 지불해야 하는 모텔 등 숙박업소를 가가이에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았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저렴한 숙소를 알아보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C씨는 재단의 도움으로 911쉼터에서 머물면서,

재단이 연결해 준 고용노동부 구직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등 도움을 받았다.

최근 광주-전남에서도 이들과 처럼 거처를 잃고 도움을 요청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재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가정 불화 등으로 가출한 이주 여성의 경우 고발이나 폭력 등에 노출되기도 쉬워 안전한 쉼터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재단이 운영하는 외국인주민 상담센터 ‘이주민수호천사 911콜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019년 520건, 2020년 851건, 2021년 1112건, 2022년 1413건, 2023년 1969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재단 측은 “상담 사례 중에는 거처 문제와 직접 연관된 ‘가정상담’(338건), ‘사업장 갈등’(723건), ‘임금체불’(1190건)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직접적으로 거처 관련 상담을 해 오는 경우도 한 달 평균 60여건이 이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쉼터가 문을 열기 3주 전부터 이곳에는

갈 곳 없는 외국인 주민들이 몰려들어 1일 현재 10명이 쉼터에서 지내고 있다.

재단은 쉼터에 입소한 외국인 주민들의 구직 활동을 돕고 구인 작업장까지 통역과 함께 동행하는 등 도움도 주고 있다. 기존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하거나 불화로 인해 쫓겨난 경우, 사업장 대표와 외국인노동자 사이 상담과 조율 역할을 맡아주기도 한다.

주요표 재단 대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가정 폭력을 당하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등 아픔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이 많다”며 “먼 타향에서 꿈을 안고 찾아온 외국인 주민들에게 잠시나마 휴식과 안정을 제공하고 위생과 결핵을 유지하며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광주에는 2만 5935명, 전남에는 5만 3506명의 등록외국인이 거주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지오푸드’ 무등산 수박 본격 출하 광주 대표 특산품인 무등산 수박의 출하를 앞두고 1일 오후 북구 금곡동 수박밭에서 농민이 큼직한 수박을 수확하며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2일부터 금곡동 무등산 수박 공동 직판장에서 판매되는 수박은 3만원(7kg)부터 27만원(24kg)까지 가격이 형성돼 있으며 올해부터 세계지질공원 지역에서 재배하거나 생산한 농산물·음식 등에 적용되는 국제 식품 브랜드인 지오푸드로서 첫선을 보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쓰레기소각장 문제, ‘사회적 대화’로 푼다

광주시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1일 광주시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에 따르면 5일부터 한달간 광산구 21개동에서 쓰레기소각장에 대해 ‘사회적대화’라는 이름의 논의가 진

행된다.

이번 논의는 쓰레기소각장 설치가 광주지역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으면서 지역민들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이뤄진다.

먼저 5일 오전 10시 광주보건대학 두란노관 1층

창의융합복합센터에서 신창동 사회적대화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 도시의 쓰레기 문제’, ‘자원회수시설의 현황과 사례’, ‘우리 동네에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온다면?’ 등을 주제로 지역민들과 논의가 진행된다. 이후 사회적 대화는 6일 신가동(꿈쟁이 작은도서관), 8일 첨단1동(광산구 청소년수련관), 9일 수완동(원당산청소소년문화의집) 등 21개 동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다인 기자 kdi@

위험천만 전동킵보드 제한속도 줄인다

광주경찰 안전모 미착용 단속 강화

광주에서 전동킵보드 사망사고(7월 22일자 광주일보 6면)가 잇따르자 경찰이 공유 킵보드 제한속도를 내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광주시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달 전동킵보드 교통사고로 광주에서 3명이 숨짐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교통안전대책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광주에서 발생한 전동킵보드 사망사고 3건 중 2건은 2인 탑승·안전모 미착용·음주운전 등 안전 수칙 미준수 때문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경찰은 관계기관과 전동킵보드 주차장 확대 및 공유 킵보드 최고속도 하향(25km/h→20km/h)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름 휴가철 이륜차·PM·음주운전 교통단속을 지속 실시한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치명적 사고로 이어지므로, 안전모 미착용은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PM 교통안전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중·고교생 대상으로 E-알리미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전동킵보드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중·고교 학부모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한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학생 대상으로는 광주 내 19개 대학교와 협업체 대학교협회, 공식 SNS에 이용 안전 수칙을 게시하고, 학교 내 공유 킵보드 집결지, 주차장 등에 배너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전수칙을 알린다.

또 PM 이용이 많은 대리기사(100여 명)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광주 소재 군부대에 방문해 군인 장병(400명) 대상으로도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신체가 외부로 노출돼 있어 가벼운 접촉 사고만으로도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PM 이용 시 1인 탑승,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 이용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동구 초등학교 집단식중독 원인은 ‘사포바이러스’

광주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달 발생한 집단 식중독 증세의 원인은 장병원성대장균인 ‘사포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광주시 동구보건소는 최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이같은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동구보건소는 지난달 10일 광주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등 총 29명이 설사·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자 원인 분석에 나섰다. 동구보건소는 유증상자 17명, 조리종사자(무증상) 10명의 검체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유증상자 중 6명, 조리종사자 1명에게서 사포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사포바이러스는 48시간에 걸쳐 설사, 구토, 발열, 권태감, 복통을 일으키는 병원체로, 분변이나 경구감염을 통해 전파되며 잠복기는 24-48시간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40724-중-173103호

상무지구 BYC사거리 진료문의 | 062-381-3900

이제 광주스마일안과의원에서 시력을 개선하세요!

- 체계적인 진료시스템
- 풍부한 임상경험의 조용윤원장
-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과



광주 스마일 안과
Smile Eye Clinic

스마일수술/라식/라섹
드림렌즈 / 노안라식
www.smile-eye.co.kr